

**멕시코 GtoG 국가간계약관련 법령 존재여부 확인 및 공공경쟁입찰  
제도 조사보고서**

**조사 의뢰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고서 작성자: CHO&ASOCIADOS 법무·회계 법인대표 조우현변호사**

**제출장소 및 날짜: 2020년 10월 8일, 멕시코시티**

□ 목차

1. GtoG (G2G) 계약 및 조달법관련 법령 존재 여부 확인

1.1.GtoG 계약 및 법령 존재여부 확인

1.2. 조달법 법령 존재여부 확인

2. 공공부문 입찰제도, 종류 및 절차

2.1. 입찰제도

2.2. 입찰종류

2.3. 입찰진행절차

3. 일반 국제경쟁입찰 사례 및 관련자료

4. 시사점

## 1. GtoG (G2G) 계약 및 조달법관련 법령 존재 여부 확인

한국-페루 간 G2G 계약이 여러건 진행되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관련 조사를 해보니 페루의 경우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분야 조달을 위해 국가간 (G to G) 계약 즉, 정부가 계약 (GtoG/Government to Government Contract)이 체결된 사례가 없고 이에 정부간계약 G2G 체결관련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특정 법령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멕시코는 공공경쟁입찰을 통해 발주정부와 기업간 양자방식의 정부발주계약 (G2B)이 일반적이다. 국제 발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 응찰 및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이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도 공공부문 서비스, 임대 및 구매에 관한 법률로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úblico (LAASSP) 가 존재한다. 2000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한국의 조달사업법과 유사한 법으로 볼수 있다.

## 2. 공공부문 입찰제도, 종류 및 절차

### 2.1. 입찰제도

멕시코 공공계약(Contratación Pública)은 멕시코연방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34 조에 의거 모든 분야의 서비스 제공, 모든 종류의 동산의 양도, 임대 및 구매와 공공 인프라사업/공사 계약체결에 있어 법적요건 충족과 특정한 프로세스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있다. 이 프로세스가 입찰 (Licitación)이며 투명성과 효율성에 입각해 입찰에 관심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경쟁입찰(Licitación Pública)로 진행된다.

공공계약 체결이 연방정부 산하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방정부인 멕시코시티와 주정부 (31 개) 및 시정부 역시 자체 공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방법 뿐만 아니라 32 개의 지방정부 역시 관련 자체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2.2. 입찰종류

대부분 공공부문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서는 공공경쟁입찰제도를 활용한다.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특별한 케이스로 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입찰로 일정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받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나 해병대등 방산물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에서 무기를 거래하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3 인 이상 초청하는 제한입찰(Invitaciones restringidas)을 하거나 의약품, 백신 혹은 의료기기 공공구매를 위해 경쟁입찰 절차없이 직접구매 (Adjudicación directa)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거법령: 공공무분 서비스, 임대 및 구매관련 법률 26 와 41 조)

멕시코 공공경쟁입찰 (Licitación pública) 은 크게 국내입찰과 국제입찰로 나뉜다. 또 국제입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Licitación pública internacional bajo la cobertura de tratados) 과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 기업이나 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국제경쟁입찰(Licitación pública Internacional abierta)로 나뉘게 된다

공공부문 서비스, 임대, 구매에 관한 법률 26 조에 의거 연방 혹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산하기관들은 필요로한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받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개입찰제도를 통해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공공계약을 체결한다. 각 정부기관은 사전에 시장조사와 참여가능한 공급업체들을 조사하여 공공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 기준들은 설정한다.

공공입찰은 3 가지 방법으로 실행한다. 직접 입찰 참여기업이 제안서를 지참하여 해당일자에 특정장소에 출두하는 형태인 Presencial, 전자시스템으로 특정장소에 출두없이 모든 서면도 전자시스템으로 송부하여 진행하는 형태인 Electrónica,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두 형태를 혼합한 Mixta 형태로 이루어 진다.

멕시코에는 COMPRANET 이라는 조달사이트가 존재하여 대부분 전자입찰절차로 진행된다. 공공구매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입찰참여기업의 등록 및 발주 시스템을 갖추고 발주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G2B 정부발주계약 구매사이트: [www.gobl.mx/compranet](http://www.gobl.mx/compranet) 참조)

멕시코 공공경쟁입찰은 크게 다음 3 가지로 크게 나뉜다.

[공공경쟁입찰 종류]

입찰구분	입찰종류	비고
1. 국내입찰	국내경쟁입찰(Nacional)	-멕시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제품 또한 일정부분 멕시코 생산품이어야 함, -멕시코 경제부(SE)가 설정한 일반기준 (Reglas de carácter en general)에 따라 노동, 원산지측면에서 LC/Local Content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함
2. 국제입찰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 (Internacional bajo la cobertura de tratados)	-멕시코 또는 멕시코와 FTA 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개인사업자만 참여 가능 -FTA 를 체결했다라도 공공부문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음
	일반 국제경쟁입찰 (Internacionales abiertas)	-FTA 체결 여부, 제품의 원산지비율과 상관없이 한국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음 -국제경쟁입찰은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 진행하며, 제출가격이 국내 최저가 기준단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원: 공공부문 서비스, 임대 및 구매에 관한 법률 28 조)

### 2.3. 입찰절차

공공경쟁입찰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공공경쟁입찰 절차]

순서	진행절차	비고
1	사전승인된 정부예산 존재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서 해당 물품이나 용역 구매에 대해 각각 예산안이 사전승인이 있어야 함
2	공공입찰 및 계약관련 기본조건 및 요건문서 작성	-사전시장조사 -입찰 소집부터 낙찰과 계약까지 전반적인 입찰 조건 및 요건에 대해 자세히 기재 함
3	입찰소집공고	-일반적으로 COMPRANET 전자입찰을 통해 전체공고를 함 -입찰에 참가한 공급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집공고 내용 수정 가능 함
4	입찰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요건을 충족하여 제출기간내에 제안서를 제출 -입찰보증금 설정
5	제안서 열람/공개	-요구조건 미충족 혹은 관련서류 미제출자 공지 -낙찰자 발표일자 공지
6	낙찰자 발표	-낙찰자 발표 및 입찰경과 문서 발급
7	계약체결	-계약서 당사자 서명

(자료원: 공공부문 서비스, 임대 및 구매에 관한 법률)

### 3. 일반 국제경쟁입찰 사례 및 관련자료

한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었던 일반 국제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진행된 Tren Maya (마야 철도) 프로젝트관련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첨부한다.

\*첨부자료: 입찰 공고 문서, 낙찰 발표 문서, 공공 계약서 전문

### 4. 시사점

GtoG 정부간 국가간 계약은 상대적으로 페루와 같은 후진국들에서 정부주도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실행한다. 멕시코같이 여러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은 GtoG 국가간 계약으로 공공부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주정부와 기업간 양자방식의 정부발주계약 (G2B)이 앞으로도 일반적일 것이다.

자유무역체결 국가에서 필요로하는 물자나 서비스의 수량, 재품질, 가격 및 기회등의 요소들을 충족시켜 줄 공급자를 찾지 못하면 일반 국제경쟁입찰로 참여범위를 확대시킨다. 앞으로도 계속 자국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미체결 국가의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한국이 멕시코와 FTA 체결국가가 아니므로 우리기업은 일반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하니 일본, 유럽국가, 미국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멕시코연방전력공사 (CFE), 멕시코석유공사 (PEMEX), 멕시코교통통신부 (SCT) 그리고 멕시코사회보장청 (IMSS) 등은 대형 입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부정부패 방지목적으로 공공경쟁입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재화나 용역 구매절차가 더욱더 투명해지고 있다.

대부분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이 많겠지만 멕시코 신정부가 보건의료, 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각종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려 해당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은 적극적으로 국제입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 역시 코로나 19 위기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으며 상당수 정부 발주 프로젝트 역시 중단되었고 인프라구축, 공공조달 구매등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금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성화 될 것이다.

조속히 한-멕시코 FTA 가 체결되어 교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이 FTA 체결국 대상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더욱 경쟁력을 갖고 멕시코 현지 진출 경로가 다변화 되기 기대한다.